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오후(4부)	5시
수요예배	자녀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4부(오후)	5시
수요예배	자녀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10월 10일 (제111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돌부리를 조심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눅16:10).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내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다.

어느 누구도 태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다 작은 돌부리에 넘어져 코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뒤통수가 깨지는 것이다. 작다고, 적은 것이라고 업신여기다가 큰코다친다는 것이다. 자고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좀이란 놈이 비싼 실크 옷에 구멍을 내고, 작은 딱정벌레 하나가 몇백 년 고목을 쓰러뜨리고, 개미 하나가 뚝 밑을 허는 법이거늘...

대형사고는 너무 작은 것이라서 ‘그까짓 거...’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한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했고,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 바로 작은 고무패킹인 O링 때문이었다. 발사되기 전에 기술자들은 이 고무패킹의 문제점을 언급했고, 교체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상부에서 ‘그까짓 거’ 하며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사를 감행하여 그런 참사에 이른 것이다.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예리고를 무너뜨렸지만 작디작은 아이성에서 참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다.

요즘 매스컴에서 떠드는 이야기가 뭐가. 예전에 했던 작은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 달려야 할 시점에 발목이 잡힌 것 아닌가. 아무리 큰 물고기가라도 작은 낚시에 걸리면 움 짝달짝 못하고, 거대한 독수리라도 작은 그물에 걸리면 사냥꾼에 잡히고 마는 법, 작은 죄, 작은 거짓말, 사소한 나쁜 습관이 인생의 울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것일랑 아예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니까.

성공한 사람은 망원경과 현미경이라는 2가지 안경을 지니고 인생을 산다. 망원경으로는 인생을 멀리 보고 계획을 세우고, 현미경으로는 작은 것도 크게 볼 줄 아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망원경만 들고 멀리 보기에 급급하다 작은 돌부리에 넘어진다. 현미경도 챙겨라. 세밀한 것까지 주의하고, 챙기고, 점검하는 습관이 너를 성공으로 인도할 것이다.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요, 거짓은 인생의 암이다

“진실은 우주를 초월하는 화폐다!”

“목회 성공을 원하면 거짓을 죽여서 이 기도원에 무덤을 만들고 내려가라!”

2005년 제9회 세계목회자 영성세미나가 열린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목사님은 1,000여 명의 세계 목회자들 앞에서 이처럼 사자후를 토해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자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로 고백하며 사의를 표했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예배를 통해서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요, 거짓은 인생의 암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산 위의 동네처럼 드러난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짓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된 순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못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의 신뢰로부터 버림받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든 탐도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100년 간 무성히 자란 나무도 자르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컸다고 자랑하면 넘어집니다. 매사 점검하고 점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딱 밝혀 주셨으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입에 칼을 무는 심정으로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거짓도, 진실도 결국엔 다 드러납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하나님의 자



2005 제9회 세계목회자 영성세미나(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의 자녀인 것입니다. 목사님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목회하며 얼마나 거짓에 관대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마귀 편에 동조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이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을 칼로 난도질하듯 단호히 죽여서 이 기도원에 무덤을 만들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의 무덤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목회에 강렬한 이정표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목회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세미나 이후 세계 현지에서 만난 목회자들은 ‘거짓을 죽여 무덤을 만들고 내려가라’는 목사님의 마지막 날 메시지가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목회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

만들었다고 해도 그 가운데 불량품이 나오는 순간, 시장에 삼시간에 소문이 나고 그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불량품 제거에 기업의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요, 거짓은 인생의 암입니다. 암은 조기 발견하여 제거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내 기업을, 내 가정을 점검하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그 암이 전신으로 퍼져 결국엔 아무리 명이라도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점검하라, 점검하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회 초기에 거짓말하다 교회가 깨지는 뼈저린 경험을 하고 난 후, 입에 조약돌을 넣고 다니며 거짓과 싸웠습니다. 나의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나 자신과 부단히 싸워 이긴 결과입니다. 공

녀는 어디를 가나 정직하고 분명하면 땀땀하고 당당합니다. 설령 요새처럼 진실이 잠시 외면당하고 핍박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는 그의 진실이 종국엔 상상 이상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완전범죄를 피했던 다윗의 졸렬한 꿈수 역시 하나님 앞에는, 진실 앞에는 어떠한 권력도 무용지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성경뿐입니까? 세계사를 보아도,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현대사를 보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눅12:2).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요, 거짓은 인생의 암입니다.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20:1~11)

꿈의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죄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욥33:14~17).

제가 목회 37년 동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꿈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계시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목회 시작할 때 ‘어느 목사를 따르라’고 꿈으로 목회 노선을 정해주신 일, 올림픽공원에서 88체육관으로 예배처소를 이전한 일, 이사하려던 집을 포기한 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해서 기도원에 내려갔던 일, 해외집회 때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려주셔서 상황을 모면했던 일...

계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인치듯 꿈으로 교훈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보고 계시기에 한치 앞도 못 보는, 1초 앞의 상황도 모르는 우리에게 꿈으로 계시하사 재앙을 막아주시고 꿈을 심어 주십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욥2:28)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시곤 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대의(大義)를 밝히셨고(마1:20),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헤롯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재앙을 막게 하셨으며(마2:12), 요셉에게 아기 예수와 함께 피신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마2:13~14). 또한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셨고(창41:1~7), 라반에게 야곱을 죽이지 못하게 현몽하셨으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말씀하사 죄를 짓지 않게 하였고, 야곱에게 꿈으로 장래를 약속하셨으며(창28:12~), 요셉에게도 꿈으로 그의 앞날을 말씀하셨습니다(창37:6~). 솔로몬에게는 꿈에 소원을 물어보시고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고(왕상3:5), 기드온에게도 꿈을 통해 격려하셨으며(삿7:13~15), 바울에게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하사 선교의 방향을 바꾸게도 하셨습니다(행16:9).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꿈의 환상을 보고 수락하게 됩니다(행10:9~).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묵상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꿈을 마음에 두고 기도했고, 그 계시를 하나님의 뜻과 명령으로 받아들여 행동

함으로 재앙을 피하고, 장래에 대한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개꿈’이니 ‘헛꿈’이니 하며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아도 될 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에 당하고 맙니다. 그레놓고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되레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아니, 자동차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자동차 회사 책임입니까? No! 경고를 무시한 본인 책임입니다. 자고로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나를,

우리를 무시하는 법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함께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떨치시리이다”(시73:20).

지금 돌이켜봐도 참으로 아픈 이야기지만, 오래전에 우리 신학생들이 결혼식에 참석하러 대구에 내려가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터져 참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 신학생의 아내가 꿈에 사고를 당하는 꿈을 꿔다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그 남편은 아내의 말을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러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꿈을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지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줍니다. 땅의 중앙에 고가 높은 나무 한 그루가 있어 그 아래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었는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해쳐서 들짐승과 새들이 떠나게 하고 간신히 그루터기만 남겨두더라는 꿈이었습니

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본디 오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의 일에서 손을 떼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이를 무시해서 세세토록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라’ 하는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마29:19).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고로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계시는 커녕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오죽하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토로했겠습니까? “심히 군급

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

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

다”(삼상28:15).

사람들이 꿈을 무시하는 까닭은 아마도 즉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추나 무, 배추처럼 당년에 결실을 보는 것도 있지만, 과실은 3년이 기본이요, 인삼은 6년이 기본 아닙니까? 다 다른 겁니다. 꿈이 크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법입니다. 하긴 저도 금방 이뤄질 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성경이 펼쳐지며 거기에 ‘명성’이란 두 글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금방 이뤄지는 줄 알고 흥분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15년이란 세월이 걸립니다. 그것뿐입니까? 힘들고 눈물겨운 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15년이란 세월이 저를 세계적인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야곱도 20년, 요셉이 13년 걸렸지 않습니까. 열매는 씨를 뿌린 자의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거듭 보여주는 꿈이 있을 겁니다. 요셉이나 바로나 느부갓네살에게처럼 말입니다. 이는 더욱 명심해야 합니다.

전에 있던 전도단 건물을 인수할 기회가 왔을 때 거듭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두 척의 배가 연결되어 잘 가다 한 건물에 걸려 난파되는 것이었고, 하나는 그 건물 사면 벽에 십여 마리의 용이 달라붙어 허를 내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이어져 그 건물을 인수하려던 세 사람이 경찰에 구속되었고, 나중에 그 사람 중 한 사람은 출감하고 그 대신 제가 구속되는 꿈을 연이어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혹시라도 제가 그 건물에 미련을 가질까 봐 거듭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길랑 노트에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좋은 것은 이뤄달라고, 나쁜 것은 막아달라고 기도하세요. 꿈을 주신 이는 이미 나쁜 것은 막아 주시려고 주신 것이고, 좋은 것은 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시하지 않으면 분명히 좋은 계시는 이뤄주실 것이고, 나쁜 것은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계시를 받은 것은 발설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맘속에 조용히 간직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요셉은 곧바로 형제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아버지의 총애를 듬뿍 받는 요셉이 미워죽겠는데 꿈 이야기까지 하니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창37:8).

계시를 무시하는 자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아브라함처럼 입 꼭 다물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준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는 아내에게 조차 의논하지 않았습니

다. 혼자 사흘 동안 가슴앓이를 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창22:17). 자고로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지혜입니다(잠25:2).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이상으로든, 음성으로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에서 계속 방송을 송출하건만 사이클을 맞추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사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계시하사 죄악을 방지케 하시고, 미래를 예시하시며, 격려하시고,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비자발적인 투자는 안 돼요

여러분께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로 했다면 왜 투자를 하는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지, 목표달성 기간은 얼마로 예상하는지, 리스크는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등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명하게 정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로브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투자목표를 아주 높이 잡아야 하는데, 그저 높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투기적인 목표라야 하며 동시에 안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투자는 투자원금을 활용해 현재 갖고 있는 필요 이상의 구매력을 온전히 보전할 뿐 아니라 배당금이나 자본이득(시세차익) 같은 형태의 투자수익을 올림으로써 원금을 늘리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브는 일단 투자를 시작했다면 절대 즉흥적으로 투자를 종결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더욱 나쁘다고 지적합니다. 나중에 ‘비자발적인 투자’로 그냥 보유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명심해야 할 점은 자신의 투자를 종결할 때, 그 결과가 이익이든 손실이든 먼저 그 금액을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규모를 작게 해야 하는데, 물론 이는 자신의 가용투자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입니다. 작게 투자해서 큰 투자 수익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은 급할 때 쓸 수 있고, 지금 투자한 종목을 매매했을 때 경제적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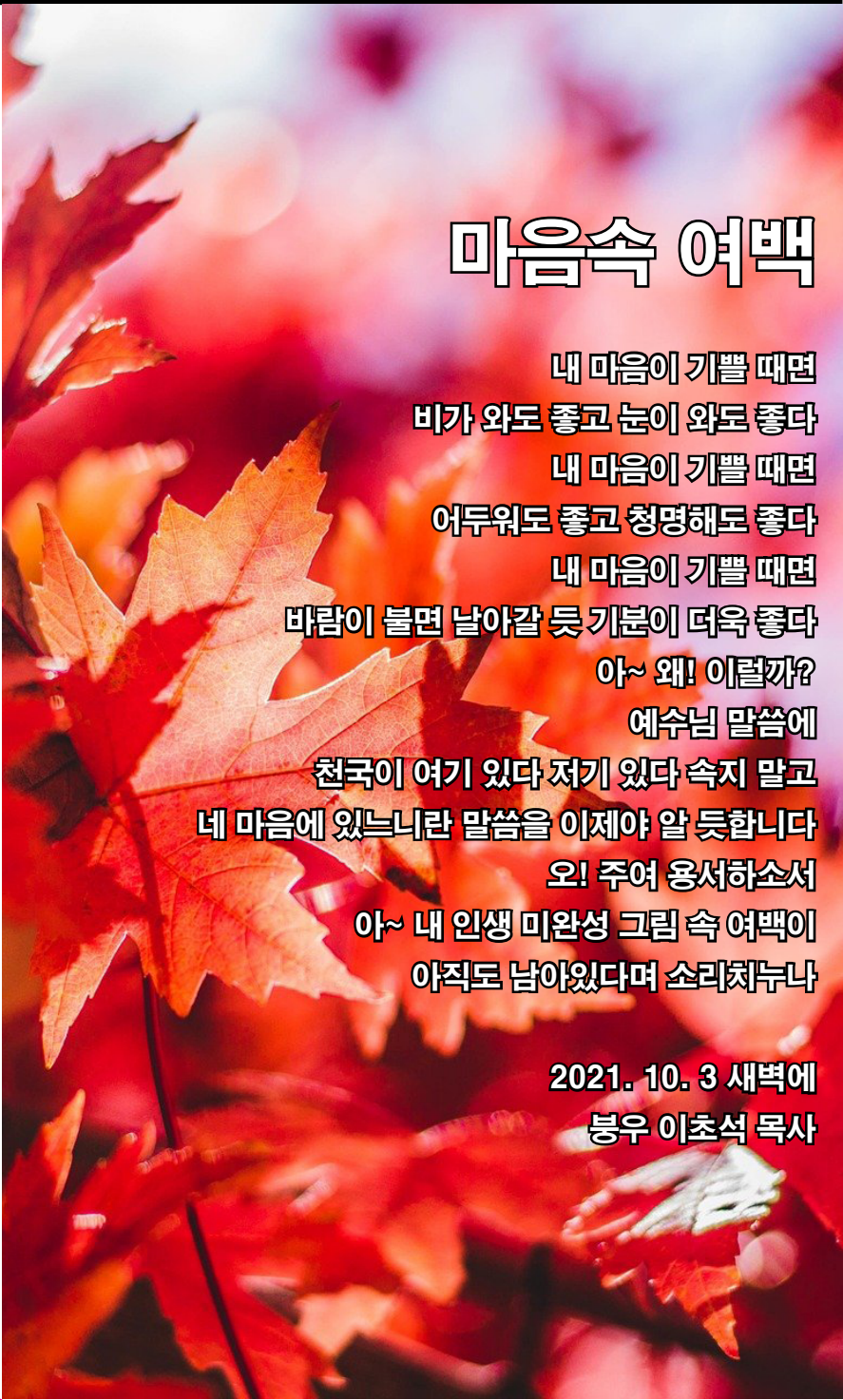
인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공포나 탐욕, 갑작스러운 자금 수요, 혹은 투자수익률을 올리는 데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는 인간 본성의 오류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효과적으로 주식투자를 한다면 가용자금 가운데 일부만 투자해도 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굳이 여러 제약을 무릅쓰며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기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의미일 뿐 절대 신용을 쓰거나 어떤 형태로든 대출자금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로브의 지론입니다. 투자자금이 큰 경우라도 수많은 종목에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 몇 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투자 금액을 늘리면서도 몇 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식으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안전성도 높이고 투자수익률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점검부재는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사람도 확인하고 물건도 점검하라고 하시며, 이처럼 매사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지식과 경험 있는 자의 지혜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영적인 지혜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추어 두신 많은 세상 자원을 찾아 사용하고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 To Be Succeeded ::

최고의 스펙

1년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 어린 아들과 딸을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보낼 때였다.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아줄 곳으로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동네에서 꽤 크고 좋다는 어린이집에 입학 등록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어딘지 맘이 편치 않고 행한 느낌마저 들었다. 다른 곳은 모두 신청이 되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아니라는 성령님의 사인이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성이던 가운데 동네를 오며 가며 슬쩍 보았던 길가에 조그만 어린이집이 떠올랐다. 분명 정원초과라고 쓰여 있었지만 두드려보자 하고 전화를 했더니 역시나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다. 옛그제 아이가 이사를 가서 자리가 났다며 아이들을 데려오란다. 가보니, 규모가 크거나 시설이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안정된 느낌에,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이 여실히 느껴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원장, 원감 선생님 모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셨고, 선생님들도 모두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관여와 인도하심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거

기서 졸업 때까지 날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만일 그때 급하다고 해서 성령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두드려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타협했다면 맛보지 못했을 행복이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과의 멋진 추억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혈루증 여인과 수로보니게 여인,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등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 받고 변화된 추억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산등성이와 계곡을 오르내리는 동안 때로는 애통함으로, 또 때로는 웃음 지으며 하나님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간다. 이는 세상은 결코 가질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스펙(spec)이다. 크고 작은 문제를 겪을 때마다, 세상 방법과 현실과의 무조건적인 타협이 아닌 무릎과 눈물로 주님 앞에 진실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이 최고의 스펙, 우리 세대가 누릴 뿐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꼭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할 유산 중의 유산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시37:5). 이국진 사모



:: 생명의 말씀 ::

인생의 여백

요즘 Netflix를 통해 전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어린 시절 경험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비롯해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단순한 게임을 소재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하는 창의를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 게임의 참가자들은 돈과 세상살이에 찌들어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일확천금을 위해 목숨을 건다. 매 게임마다 본인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선택과 요행으로 살아남고, 패배자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는 처참한 죽음이 기다린다. 456억이라는 상금을 쟁취하기 위해 이합집산도 이뤄지고, 때로는 가장 믿는 동료까지도 죽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잔인한 게임이다. 다른 참가자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죽은 사람 수 만큼 역대 상금이 쌓이는 것을 보며 다시 게임에 몰두하게 된다. 우리네 인생이 이 ‘오징어게임’이 아닌가? 욕심을 좇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안간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이. 요즘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움직

이는 것보다는 정지 동작이 더 정밀하게 내 몸을 훈련한다는 것이다. 내 온몸과 신경은 정지 동작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잔 근육을 쓰게 만드니 더욱 세밀한 운동이다. 말하고 달리는 것보다 침묵과 정지가 인생을, 건강을 위한 더욱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요즘이다. 사역하던 지바교회에서 귀국한 후에 맡겨진 사역지가 없으니 참 곤고하기 짝이 없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내 심정을 정확히 아시고 목사님 잠언 구절을 보내주셨다. ‘그림의 여백과 사람의 여유가 명작을 만든다.’ 큰 위안과 감동을 받았다. 난 위기와 고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버텼었다. 그래서 내 인생 서바이벌 게임의 결말은 천국행으로 끝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두렵지 않은가. 패배자의 말로가. 영원한 생사의 기로 앞에서 세상살이에 한눈팔고 사는 것이. 인생의 여백과 여유를 갖추고 바른 소원대로 갈 길을 가야겠다. 이광주 목사 leekilkj@naver.com

아낌없이 주는 말

신입사원 시절에 비슷한 연차의 동료들과 소모임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모임의 이름은 ‘수고했다’였지요. 각 팀의 막내였던 우리는 실력이 무척 부족했고, 매일 선배들보다 늦게 퇴근하며 애쓰고 노력했지만 쓸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전날 밤을 꼴딱 새워서 아이디어를 준비해도 선택되는 게 없으니 잘했다, 고생했다는 칭찬을 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서로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듣기 힘들었던 그 말을 우리끼리 해주며 독려한 거지요.

어느덧 해가 바뀌고 서툰 업무도 조금씩 익숙해져 갈 무렵, 회사에 십여 명의 인턴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저도 배울 게 많은 연차인데 후배들은 만날 때마다 깍듯이 인사하며 저를 선배로 대해주었지요. 몇 달이 지나 카피라이터를 지원한 인턴사원이 저희 팀으로 배정되었고, 저의 직속 후배가 되었습니다.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라 생일에도 야근을 했는데요, 그날 후배가 건넨 작은 선물과 편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편지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녀가 저의 팀으로 배정되기 한참 전이

였다고 합니다. 점심을 거르며 일하던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다 저와 마주쳤고 저에게 인사하자 저도 그녀에게 인사하며 “밥은 먹었어요?”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 그녀에게는 참 따뜻하고 위로가 되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저의 생일에 감사했다고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제가 그 말을 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는 건 저에게도 “밥은 먹었어요?”라고 물어준 선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일해본 적도 없고, 오고 가며 인사만 하며 얼굴만 알지 이름도 모르는 선배였습니다. 가끔 정오쯤에 마주쳐 인사하면 그 선배는 고개만 끄덕이고 마는 게 아니라 말 한 마디를 덧붙였는데 그게 “밥은 먹었어요?”였습니다. 별거 아닌 그 말이 신입사원인 저에게는 참 다감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었는데, 저의 마음속에 남았었는지 무의식적으로 저도 후배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발전하는 게 없어 보이던 시절이었는데 나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구나 싶어 기뻐고, 비록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최근 저는 <일상이 슬로우>라는 제목의

에세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이 출간되면 마냥 기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어쩐지 평가대에 선 것처럼 마음이 좋아불고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져 한동안 글쓰기가 부담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에게서 온 문자가 순식간에 저를 일으켜주었습니다. 올해 제일 즐겁게 읽은 책 중에 하나라며 너무 좋았다는 몇 글자 메시지가 마치 어두운 방안에 스위치를 탁 켜준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유명인이 아니니까 나의 말에는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우리의 말을 통해 누군가는 힘을 얻고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의도치 않게 말이지요. 그래서 되도록 좋은 말은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잘하면 잘한다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렵더라고요. 가끔은 질투가 나서 좋다는 말을 마음에만 담아두고 말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좋은 말만큼은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말이 그날을 버텨낼 힘이 되어줄지 모르니까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작은 물고기는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지만, 뿌리가 뾰족한 거대한 통나무는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새는 마음껏 창공을 날아다니지만, 위용을 자랑하는 바위는 꿈쩍달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유무에 따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 낙담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표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거룩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에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막연한 공포 때문에 그것을 이기려고 술이나 세상의 쾌락, 아니

면 죽을 때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할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복락의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지옥입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장수하는 삶에 필요한 생활습관은

미국 보스턴 대학의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100세 이상 사는 장수자의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방식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첫째, 신체활동을 활발히 하며,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닌 가벼운 산책이나 가벼운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루에 30분 이상 하고 있다.

둘째, 적어도 수면은 6시간을 취하는데, 수면 중 렘수면(REM, Rapid Eye Movement)은 안구가 움직이며 뇌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꿈을 꾸는데, 장수하는 분의 경우 렘수면을 들어가는 수면을 취하고 평소 수면을 최우선 비결로 꼽고 있다.

셋째, 고민거리를 내면에 숨겨두거나 밤새 씨름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기도, 운

동, 찬양, 요가, 명상, 기도, 태극권, 호흡 훈련 등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종류의 활동을 하며, 같은 시간에 잠을 자기에 몸이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하룻밤 잠을 설치거나 과음을 하면 회복하는데 매우 힘이 들고 면역력이 허약해져 바이러스나 세균감염에 잘 걸리게 되어 위험이 높아진다.

다섯째,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대화와 접촉을 한다. 노인기의 우울증은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는데,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면 한의학적으로는 몸의 노폐물이 되는 담음(痰飲)의 배출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 100세 장수자의 비율이 높은 이탈리아 키안티 지역에서는 대부분 퇴직한 뒤에도 작은 농장이나 과일 채소를 기르며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고 한다.

일곱 번째, 치실을 사용한다. 치실은 입안의 세균이 일으키는 치주질환의 위험을 낮추며, 치아의 세균은 핏속에 들어가 동맥에 염증을 일으켜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화가 자주 나거나 속으로 삭히는 경우 모두 몸의 염증을 유발하는데, 감사한 마음과 회개를 통한 기쁨은 내면의 화를 풀어주고 육체와 영혼에 새로운 평안함과 건강을 주는 소중한 신앙습관이며 장수에도 도움이 되는 습관이다.

Dr. 설재현 집사

우리는 산 위의 동네

야인시대의 ‘김두한’, 태조 왕건의 ‘궁에’로 유명한 배우 김영철이란 배우가 있다. 사극 연기뿐만 아니라 정극 연기도 잘하고 연기력이 출중하여 연기대상을 여러 번 차지한 A급 배우이다.

그는 과거 촬영현장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폭군 배우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배우들은 촬영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때가 많은데 김영철 씨는 촬영 순서가 1번이 되지 않거나 1시간 넘게 기다리게 하면 당장 소품을 떼고 집에 가버렸다고 한다. 그러니 스태프들이 그의 위주로 촬영을 먼저 하곤 했다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김영철 씨가 촬영하던 중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본인보다 훨씬 선배인 이순재 배우가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래서 “선배님, 먼저 찍으시죠”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순재 배우는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먼저 해! 나는 팬클럽” 하면서 촬영 순서를 양보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 후, 스태프에게 알아보니 원로배우임에도 이순재 배우는 그날 밤 10시에 촬영 현장에 도착하여 동이 트는 아침까지 좁디 좁은 차 안에서 다른 이들의 촬영을 기다려줬다는 것이다. 그 말에 김영철 씨는 자신을 희생하고 배려하는 이순재 배우의 모습을 보며 촬영현장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며 이기적이었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이제는 존중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사람과 물건 질이 좋아야 한다, 사람의 인성 또한 좋아야 한다고 설교하셨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과일은 익을수록 향이 좋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도 겸손한 이순재 씨처럼 세상에서 인품이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리하여 우리의 행동을 본 모든 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 보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우지 못할 것이요”(마5:14).

송현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행복이란
만족함을 알 때부터 시작된다
욕심은 불행의 시작이다
- 봉우 -